



해남 대둔사는 오는 26~28일 주5일근무제를 대비한 시범 사찰프로그램 '새벽 숲길 2002'를 실시한다. 프로그램중 하루인 '스님과의 대화' 시간.

불교계가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포교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둔사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시민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찰프로그램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해남 대둔사(주지 보선은 26일부터 28일까지 '새벽 숲길 2002'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미진

대둔사, 주5일제 대비 수련프로그램 마련

'새벽 숲길 2002' 실시

26~28일 시범운용...초파일후 월1~2회

반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산사 체험 위주로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좌선, 108배 등 육체적으로 힘든 프로그램은 최소한도로 편성하는 데

참가자는 선착순 30명으로 엄격히 제한하며, 수련비는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불전함에 보시하도록 했다. 또 2박3일 동안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일반인도 참가... '사색·성찰' 기획제공

상설 수련원 개방 묵언·좌선·다도익혀

신 숲길 산책, 수행일기 작성, 스님 1박2일간의 참여도 가능토록 하는 등 기존 수련회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문의 (061)535-5775, 대둔

사홈페이지(www.daedunsa.org)

한편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는 5월 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주5일 근무제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노부호 서강대 교수가 '주5일 근무제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을, 법인스님(대둔사 상설수련원장)이 '전통사찰의 대응방안'을, 심사스님(통도사 부산포교원 주지)이 '도심사찰의 대응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와 청량사 주지 지현스님, 보광사 주지 일문스님이 나설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한국조동종 창종위 발족...위원장 학봉스님



한국 조동종은 3월 29일 총본산 창종 설명회를 열고 창종위원회를 결성, 위원장에 학봉스님(원효사 주지)을 선임했다. 이날 조동종 선학연구원장 금당스님의 조동종 원류에 대한 강의와 헌찬식이 열렸다. 한국 조동종 총본산은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창종될 예정이다. 학봉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륵종 열반제·보살계 수계법회



한국불교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은 3월 27일 김해 관음정사에서 종단스님 및 신도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종 3주년 기념법회와 부처님 열반제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송정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진표유사를 종조로 미륵 10선법을 널리 포교하여 중생구제에 모든 중도들이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화합원칙 조직정비 역점"

설운스님, 태고종 경기북부총무원장 취임

태고종 제6대 경기북부 총무원장 설운스님(사진) 취임 법회가 3월 31일 양주 기원정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운산 총무원장을 비롯 경기북부총무원 산하 각사암

태고종 서울 경기 총무원 조직·직제 대폭 강화

태고종 총무원 직할교구로 있는 서울과 경기 7개 교구총무원이 지방교구 총무원과 같은 직제와 조직을 갖춘 총무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태고종은 3월 22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간부연석회의를 열고 "서울 경기지역은 그동안 중단 운영의 중추

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면서도 총무원 직할교구라는 지역과 조직특성 때문에 총무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직과 직제를 지방교구 총무원과 같은 규모로 구성하고 자체 운영할 수 있게 하자"고 결의했다. 이 결의에 따라 태고종 서울 경기지역 7개 교구 총무원들은 지방총회와 지방호법위원회를 6월까지 구성,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이경숙 기자



삼광한글학교 개교10주년 법회에서 도원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삼광한글학교 개교10돌

3일 기념법회, 94년이후 1033명 수료

92년 4월 2일 개교해 문맹퇴치와 한글보급에 큰 역할을 해온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 삼광한글학교가 3일 지관전에서 개교 10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현재까지 1033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삼광한글학교는 글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글을 읽는 기쁨을 주는 노인복지의 장으로 관심을 모아왔다. 이날 도원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삼광한글학교를 통해 배움을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분들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중국 소림사 모형사찰 일산 호수공원에 건립

중국불교선종의 개조인 달마대사가 득도한 곳이자 소림권법의 발상지인 중국 소림사가 경기도 일산에 세워진다.

중국 소림사 스승인(釋永信) 방장이 3월 31일 한중 수교 1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한 자리에서 "중국의 소림사와 같은 모형의 절을 일산 호수공원 인근에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주)정무문 엔터테인먼트의 나광훈 사장은 "일산 호수공원 인근에 2만여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차이나타운 옆에 1만여 평 규모의 소림사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금년 말 또는 내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할 소림사는 중국의 전통 무술 '소림권법'을 보급하는 것은 물론 각종 문화 이벤트를 통해 한국과 중국 불교의 교류와 이해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목탁소리 '스스로' 부터 정화해야

강유신 (취재1부 기자)

3월 16일부터 사찰생태환경 모니터에 들어갔던 사찰생태연구소(소장 김재일)가 지난 3일까지 조사된 11개 사찰의 환경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서 산림훼손, 불사, 해우소 오염 유출 등 사찰이 자연환경을 해치는 사례가 실제로 확인돼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동안 일부 사찰들의 환경 파괴 사례가 종종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들 사찰에서 나타난 환경 파괴 사례가 예측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11개 사찰이 환경문제에 충분히 대처할 능력을 가진 '큰 사찰'이라는 데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불교계가 수행환경 및 자연환경 보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불자들이 받을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그 동안 불교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

러한 요구가 가능했던 것은 불교적 삶이 곧 친환경적인 삶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연일 교계 신문과 일간지 등 방송매체를 통해 불교계의 환경수호 의지가 알려지고 친환경적 종교로서 불교의 위상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11개 사찰의 환경 파괴 사례가 밝혀짐으로써 불교계는 '스스로' 부터 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재일 소장은 "사찰환경이 상체를 입는 것은 외부의 파괴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위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대형불사를 거침없이 하는 등 스스로의 자해도 한 원인이 된다"며 일침을 놓았다.

사람들 역시 단시일 내에 완벽히 환경보호 시설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 사찰에서 나타난 환경파괴 사례는 환경에 대한 관심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슨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본가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함께하는 우리' 행사=강북장애인복지관은 개관 4주년 및 장애인 날을 맞아 '함께하는 우리'란 주제로 17일 오전 11시 30분 기념행사를 갖는다. 전통놀이 마당, 바자회,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2)989-4215 ▲차매중풍 이동 상담=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10일 오후1시 30분 성북

게시판 구 돈암동...한신광각에서 차매, 중풍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간이치매 검사 및 예방 체조와 교육 등도 마련됐다. (02)929-7950 ▲북북동포들이 거리모금 행사=청년정토회는 20일 오후4시부터 명동성당 일대에서 북북동포들이 거리모금 행사를 개최한다. (02)587-8996 ▲늘푸른 교실=삼전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저소득 여성가장 및 장애아동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한다. (02)421-6077 ▲이전=통합불교 아미타종은 최근 총무원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7-28호 승학빌딩 3층으로 이전했다. (02)514-4175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전장의 약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8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그램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걷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공관)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건강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여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경계가 됩니다. 즉, 민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중태고 보우구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정강 대진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기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두풍),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법에 의한 (뇌졸중 예방 식품요법)을 10여 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이 복용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뇌졸중(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졸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 가고시마현 구니와에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요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락백, 매실, 머위 등) ■현대대상책임보험 1억 가입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봉 청화 큰스님 초청 춘계 합동 천도재 행 백련산 신봉사에서서는 곡성 태안사 조실이신 청화 큰스님을 모시고 춘계 합동 천도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영가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나 업장 소멸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참 하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일시: 입재 - 2002년 4월 11일 (양) 목요일 회향 - 2002년 5월 2일 (양) 목요일 불교 교양 대학 개설 ▷ 일시: 매주 목요일 토요일 10시 - 12시 ▷ 내용: ① 부처님 생애 및 기초교리] 성광 예인스님(목) ② 법화경 속독 및 강의 ③ 사군자 및 생활역학 - 김부자(토) 2. 장소: 서대문구 용운3동 대인불교조계종 신봉사 TEL 02)395-1222, 3216-2036 3. 교통: 전철 - 3호선 용재역 3번 출구 - 10번 마을버스 -> 종점 - 신봉사 버스 - 8, 59, 522, 74, 806(정원여중야자 도보 10분) 용재역 통과 버스는 모두 기동함 -> 마을버스 10번 연결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성광 예인 합창